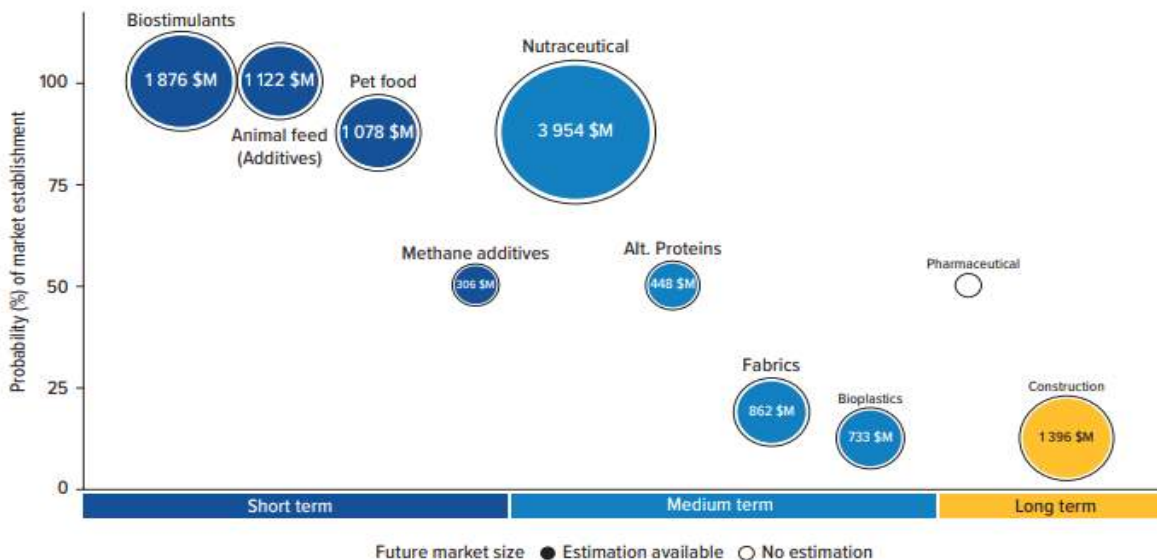


세계은행, 2030년 해조류 시장 118억 달러 전망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세계은행(World Bank)은 최근 발간한 '2023년 글로벌 해조류 시장 보고서'를 통해 탄소를 흡수하고 해양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해조류가 식품을 넘어 미래에 바이오 섬유와 플라스틱, 제약, 건축 자재와 같은 분야에서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등 소수의 아시아 국가에서 양식 해조류의 98%가 생산되고 있으나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큼.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해조류를 '블루 바이오경제 전략'의 핵심 축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에는 약 200개의 스타트업이 있음.
- 세계은행은 해조류를 활용한 10개 신생 시장이 2030년이면 11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단기(2025년 이전)적으로는 생리활성제, 동물 사료 첨가제, 애완동물 사료, 메탄 저감 사료 첨가제 등의 시장이 성장해 2030년에는 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중기(2024~2028년)적으로 기능성 식품, 대체 단백질, 바이오 섬유 및 플라스틱 등의 시장이 성장해 2030년까지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장기(2028년 이후)적으로 의약품, 건축 자재 등에 활용될 것임. 의약품의 경우 인허가의 어려움과 생산 비용이 높아 시장 전망이 어려우나, 건축 자재는 해조류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4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2030년까지 10대 해조류 시장 규모 예상 >



-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후와 환경적 이점이 있는 해조류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은 해조류가 공급 물량, 품질의 일관성 등이 부족해 가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기후와 환경적 이점이 있어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함.
 -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전환이 가속화되며, 친환경 제품 선호도가 커져 많은 기업들이 수익 창출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해조류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함.

- 해조류는 해양생태계를 활용하는 블루 카본(Blue carbon)*으로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으며, 녹색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음.
 - * 블루 카본(Blue Carbon): 바다와 습지 등의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새로운 블루 카본 후보군으로 해양미세조류, 해조류, 산호초 등이 떠오르며 미국 등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블루카본 가이드라인에서 블루 카본 흡수원으로 해조류 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연구 중임.
 - 한편, 육상에서 토양, 물에서 오염, 독소 등을 제거하거나 분해하는 생물정화(Bioremediation)가 확대되고 있으며, 해양에서도 향후 10년간 해조류는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Global Seaweed New and Emerging Markets Report 2023, THE WORLD BANK, 2023.08.16